

“장인 정신으로 만든 지역 공예품 애용해주세요”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독창적인 특산품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를 상대로 도약할 때 지역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사는 광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우수 중소기업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인의 자기 전작과 기술개발, 판로지원을 위해 광주공예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한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청라공예사

대 이은 100년 부채 명가
장관 감사패·공모전 입상
단체·주문자 맞춤 제작도



청라공예사(대표 김명균)는 대를 이어 전통공예품 부채를 만드는 공예기업이다.

점차 사라져가는 부채를 고집스럽게 만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아들 김명균 대표가 지금까지 100년을 이어 오고 있다.

접선과 합죽선, 룬선, 한지선, 태극선 등 다양한 부채를 생산·판매한다. 김 대표는 30년 가깝게 지금의 일을 지속해온 의지의 공예인으로 통한다. 광주공원에서 행상으로 부채를 팔기도 하고, 10년이 넘게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예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수의 공모전에 입·특선했으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부장관 감사패를 포함 광주시장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 받아 정부 조달 문화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름 더위에 쓰는 일반 부채에서 부채 자체에 장식성을 가미한 예술용 부채, 소리할 때 사용하는 부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체험용 부채와 선물용 부채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주문도 환영하며 주문자 생산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부채의 염색 기법을 바꿔보고, 금속 공예품도 붙이는 등 해마다 다른 작품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부채로 진다리 붓과 같은 광주의 명품 브랜드를 키워보는데 목표”라고 말했다. 문의 062-226-3906.

우진공예

LED무드등·펜 등 개발
젊은 감각 입힌 목공예
동남아 등 해외수출 모색



우진공예(대표 김종만)는 2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침대와 소파, 거실테이블, 찻상 등 나무를 이용해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목공예 생활용품 제작하고 있다. 젊은 대표가 예술성과 실용성을 가미, 전통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목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공예대전 국무총리상과 광주시공예품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무늬를 그대로 살려 제작된 수제 문화상품으로 나무 자체의 독특한 무늬를 그대로 살려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품질도 우수해 중기정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펜과 LED무드등, 솟대작 등 판 들어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싱가포르 국제 선물용품·가정용품 전시회’에 참가 작품을 선보였고 바이어와 상담도 진행했다.

김 대표는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을 만들어 서울 인사동 등에 납품하고 있다”며 “한국적인 멋이 깃들여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4115-9851.

한땀공방

야생화 수놓은 정겨운 규방공예
가방·파우치·안경 케이스 등
빛고을공예창작촌서 체험가능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땀공방(대표 노금행)은 실용성을 생각해 삶에서 사용이 가능한 튼튼한 광목에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 야생화를 수놓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자수 작품을 내놓는 업체다.

규방공예로 시작해 한땀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노 대표는 지역 공예품업체에서 실력자로 통한다.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섬유 생활소품을 주로 만드는 데 천연염색한 광목원단을 주재료로 해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가방과 파우치, 안경케이스 등도 제작한다.

“가득이나 바쁜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 살포시 나들이 나온 봄 햇살처럼, 지나간 세월의 추억속에 잠겨 옛 선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향의 도시 광주에 포근함과 소박함을 주제로 우리네 생활 속에 친숙하게 사용해보던 광목에 평범한 야생화(바늘꽃)의 아름다움을 한땀한땀 수놓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자방을 꾸며 보았다”는 작가의 말처럼 정겨운 작품들이 많다.

빛고을공예창작촌에 들르면 작품 감상과 구매가 가능하며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문의 010-3275-5179.

소울아트 도예공방

차도구·생활 도자기 공예
서울 인사동 등서 개인전
강사로 나서 기능 전수도



소울아트 도예공방(대표 이경희)은 차도구와 생활 도자기 등을 만드는 도예공방이다.

대표 이경희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자기 디자인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각종 공모전에 입상해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제47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광역시대회 최우수상과 본선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아틀리에 ‘도도한 백자전’과 광주YMCA 서구문화센터 ‘찾자리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찾자리전’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 상무고등학교와 광주예술고등학교 도예강사를 역임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YWCA 서구문화센터 도예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도예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태도의 멋’으로 이름 지어진 이 대표의 차도구 작품은 “다섯가지 유색의 조각보 패턴으로 색과 면을 맞추면서 이어가는 조각보의 예술성을 도자기에 표현한 작품으로 광주·전남 태도의 거칠한 질감을 현대적으로 구성해 한국적 전통미와 사용자의 편리함을 갖춘 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아름다움과 자연의 추상미, 원초적 순수미를 추구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 기 위해서 늘 자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자세로 작품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8615-6801.

은꽃

지역 귀금속 공예 독보적 존재
귀금속 기능대회 심사위원장
“공예품 우수성 알리기에 최선”



은꽃(대표 김희영)은 1980년대 설립해 40여년간 주얼리와 금속공예 작품 제작에 주력해 왔으며 고전과 현대를 접목한 금속공예품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업체다.

대표 김희영 작가는 광주·전남 지역 귀금속 공예의 독보적인 존재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1년 국제 귀금속 디자인전 금상과 2013년 한국 주얼리 장인상, 2016년 한국협동조합 우수기업 광주 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2017년 제20회 광주광역시관공기념품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광주 귀금속 기능대회 심사위원장과 각종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초빙돼,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각종 주얼리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아침의 궁’으로 이름 지은 김 작가의 대표작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장신구의 특징을 살려 화려함과 섬세한 기술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여러색의 보석을 사용해 디자인의 완성을 이끌어낸 작품”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현대적 공예트렌드를 접목한 금속 공예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은공예를 비롯해 지역 우수 공예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의 010-8410-668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